

내일 개봉 한국 첫 다큐멘터리 산악 영화 '길' 김석우 감독

“히말라야의 별이 된 산꾼들의 투혼 그랬어요”



신루트 개척 도중 숨진 산악인들의 60일 사투 담아

“히말라야 등반은 발이 아닌 하나된 가슴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자신의 꿈,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는 산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고봉이자 히말라야 3대 거벽인 에베레스트(8,848m)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새겨려왔던 산악 영웅들의 60일간의 휴먼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13일부터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한국 최초의 다큐멘터리 산악영화 ‘길’이다. 지난해 5월 16일 에베레스트(8,848m) 남서벽을 등반하던 이현조(전남대산악회OB)·오희준(대원)이 해발 7,700m 부근에서 눈사태로 숨졌다. 원정대는 한국의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을 맞

아 히말라야 3대 거벽인 이 곳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려했다. 영화 촬영차 원정에 동행했던 김석우(37·주)씨(더서FNH) 감독은 “대한민국이 산악영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산악인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남서벽 등반을 통해 신루트 개척의 가치를 부각시키려 했는데 갑작스런 죽음의 주제가 되었고”고 말했다. 러닝타임 100분의 이 영화는 험난한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새 길을 내려는 산악인들의 도전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루를라에서 탕보체와 페리체, 고라셉을 거쳐 베이스캠프로 이어지는 카리반(caravane)과 흰 눈을 머리에 인체 치솟은 쿠파 히말라야의 산악미, 제4캠프까지의 등반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히말라야의 별’이 되어버린 악우(巖友)들의 거친 숨소리와 ‘77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원들과의 30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동행, 공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대원들의 휴먼스토리가 녹아있다. 김 감독은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의 조감독을 맡았고 ‘2006 문경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광주일보 후원으로 다음달 10일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을 위해 마지막 남은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에 도전하는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민(45·광주시 학생산악연맹)씨의 원정에 참여, 또 다른 산악 다큐 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희호 여사 자서전 '동행' 출판 기념회



최근 86년여 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정리한 자서전 '동행'(웅진지식하우스 펴냄)을 출간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



광주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엄종대(8대), 박영수(6대), 송병순(5대), 강락원(7대) 전 행장과 송기진 현 행장. <광주은행 제공>

공무원이 포상금 500만원 이웃돕기 쾌척

순천세무서 서순기·정영근씨

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가운데) 직원 2명이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쾌척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 공무원 제1차 시상식에서 순천세무서 서순기(39·7급·오른쪽), 정영근(39·6급·왼쪽) 조사관이 금상을 수상, 각각 옥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서씨 등은 요식업 등 150여 개 개인·허가업종 사업자가 폐업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먼저 방문하는 기관에서 일괄 접수해 통보하는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 제공 시스템’ 도입에 기여했다. 이들은 상금 500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성금으로 기탁했다.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들이 포상금



을 좋은 곳에 써달라고 말겨와 세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고 말했다. 신규석 서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관광, 구례, 고흥, 보성 등 세무서가 없는 시·군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도 섬기는 세정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백혈병 어린이 위해 헌혈증서 모아요”

광주 북구청 추수경 씨

1년여 동안 1,214매 모아 광주·전남지역 백혈병·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헌혈증서’를 모으는 이가 있다. 광주시 북구청 채난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추수경(여·28·지방행정 8급)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추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해 왔다. 북구청이 2006년부터 이웃사랑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사업을 전담자로부터 이



어발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모은 헌혈증서는 1천214매, 민방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추씨는 민방위 교육자를 대상으로 헌혈증서를 모아 백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모인인 ‘빛고을 동우회’에 전달하고 있다. 광주의 한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추씨는 앞으로 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나비박사 故 석주명 선생

과기인 '명예의 전당' 헌정

나비박사 고 석주명(사진) 선생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11일 우리나라 나비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1.30~1950.10.6) 선생을 2008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5번째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되는 석주명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나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 생물학 정립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정욱기자 jwpark@

한민족어문학회장 선출

한옥근 조선대 교수가 한민족어문학회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1974년 출범한 한민족어문학회는 국제학술발표대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등을 307회 개최하면서 새로운 연구방법과 이론을 학계에 소개하고 학회 간 공동발표, 자료 발굴 및 정리, 현지답사를 통해 국어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 교수는 조선대 및 대학원을 거쳐 단국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0년부터 조선대에 재직 중이다. 조대신문사 주간 및 인문학연구소장, 한국드라마학회 회장, 한국국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필기자 camus@

광주 석산고 학부모봉사단 복지시설 위문



광주 석산고 학부모지도봉사단(단장 김혜정)은 최근 무등정신요양원·성요셉 사랑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9곳을 위문하고 독거노인 350명에게 방한용 조끼, 양말 등 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 '직무 올림피아드' 3부문 최우수상



광주신세계(대표 이정환·오른쪽)는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 멜론 악스에서 열린 '제4회 신세계 직무 올림피아드'에서 정옥왕과 기프트마이스터, 외인마이스터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정애 씨 韓赤총재 표창

<한적 장흥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장흥지구의회 김정애(71·여) 회장이 30년 동안 1만 시간을 봉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을 받는다. 김 회장은 결연을 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을 직접 찾아가 목욕 봉사, 밀반찬 제공, 청소 등을 해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다. 또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장흥사회 종합복지관에서 노래교실과 한글교실을 열어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13일 창립 103주년을 기념해 김 회장을 비롯해 봉사원 1천624명에게 상을 준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김홍남 씨 佛 최고 명예 훈장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이 프랑스 최고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슈발리에장(기사장)을 받는다. 서훈식은 14일 오후 6시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린다. '레지옹 도뇌르'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훈장으로, 프랑스인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최고의 훈장이며 문화·종교·학술·체육 등 각 사회 분야에서 큰 공적을 이룬 프랑스인과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영애씨 차남 김근형(광주 롯데백화점 노스페이스점장)군 김여중(전 광주승인고 행정실장)·유신애씨 장녀 현진양=15일(토) 낮 1시 3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 ▲김외순씨 장남 박근영군 위영희(광주시 농산유통과장)씨 장녀 정선양=15일(토) 낮 1시50분 상무지구 예벌루선예당컨벤션 3층 컨벤션홀.
▲임재은(광주발전연구원 부장)씨 장남 도경군 정찬수씨 차녀 진경양=16일(일) 낮 12시40분 상무지구 예벌루선예당식당 1층 세이저홀.
▲노영식(완도비인후과 원장)씨 장남 창선(호주 근무)군 최남산(완도산림조합장)씨 차녀 승인(산림조합 중앙회)양=16일(일) 낮 1시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 식당.
▲박진성·김애숙씨 장남 정호(현대대상)군 정봉성씨 차녀 문희(KTF)양=16일(일) 낮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
▲광주 북성중 13회 동창회(회장

- 공유일) 월례회=13일(목) 오후 6시 30분 화랑공회관. 062-224-1800.
▲화산 신농중 5회 동창회(회장 정국현)=15일(토) 오후 4시 광주 첨단 보리밭길. 011-633-5500.
▲장흥 관산초교 45회 동창회(회장 위운량)=15일(토) 오후 5시 광주 서구 쌍촌동 리더스클럽 3층 다 이아문드홀. 010-2515-2154.
▲광주진흥고 4회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15일(토)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4층 컨벤션홀, 가족·부부 동반. 011-609-2473.
▲광주 북성중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7일(일) 오후 6시 30분 우미추어탕. 062-369-1171.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정근)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 지원 회의실.

- 모집
▲임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한).
부음
▲강대석씨 별세 형도·형철(삼성전자 광주 서부지점)·미경·호정·호영·민숙씨 부친상 유재관(광주일보 편집부 차장)·장기원, 김갑중(광주도시철도공사 기전부)씨 부부상=발인 13일(토) 나주 영산포 한우리장례식장. 061-335-4949.
▲이일순씨 별세 최성순(금공건설 회장)씨 상배 만현(☞ 대표이사)·정숙(새하나무치원 원장)·계숙·광숙·정현(미소약국 약사)씨 모친상 박석인(극단 코스모스 대표)·신치수(LG정유 부장)·고준영((주)KM 대표이사)·이완성(모토로라코리아 부장)씨 부모상=발인 13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Advertisement for Shinsegae Job Olympiad with details on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 1688-3740.